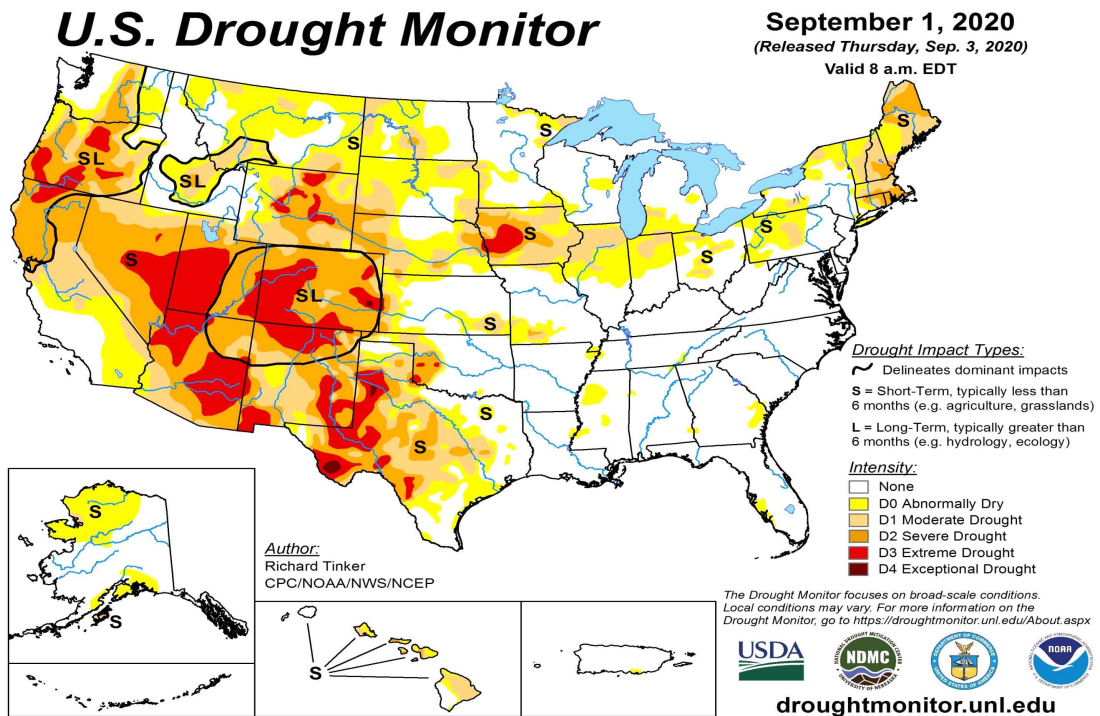


9월 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36)

□ 미국 기후 현황(8/30~9/5)

태평양 연안에서 고원 지대에 이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건조로 인해, 특히 기록적으로 비정상적인 기온과 결합된 곳에서는, 가뭄이 더욱 심해졌다. 한편, 평원 남동부와 중남부를 가로질러 폭우가 발달하거나 지속되었다. 일부 홍수는 주로 지난 주에 허리케인 로라의 남은 세력이 폭우를 쏟아낸 아칸소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 지역적으로 심한 소나기가 테네시 계곡에서 대서양 중부 주까지 가로질러 동쪽으로 확장했다. 큰 소나기가 몇 차례 내렸던 기타 지역들 중에는 플로리다 반도와 중서부 북부 지역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오와 서부를 포함하여 옥수수 벨트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들 중에서 일부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뉴 잉글랜드의 대부분도 불리한 건조 상태를 유지했다. 여름과 같은 더위가 나라 대부분을 덮고 있어서 멕시코 만 연안의 서부 지역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남부까지의 많은 곳, 리오 그란데 계곡 및 극서 전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다. 대체로 중서부의 북부만 날씨가 평년보다 선선했다 (온도가 평년보다 5° F 정도 낮음). 일주일이 지나는 중에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었던 서부의 더위에 돌풍, 낮은 습도 수준 및 가뭄 악화가 겹치면서 새로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9월 4일에, 발화된 지 3일 이내의 크리크 화재 (캘리포니아 프레스도의 북동쪽)가 거의 8만 에이커에 달하는 초목을 불태웠다. 다른 곳에서는 루이지애나 남서부의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특히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복구되지 못한 지역들에서, 허리케인의 복구 노력이 꼬였다.



### □ 농업 현황 요약(8/31~9/6)

델타, 대서양 중부, 태평양 북서부, 로키 산맥, 남동부 및 텍사스 남부의 많은 곳들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레곤 및 워싱턴의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8°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오대호, 뉴 잉글랜드 및 평원 북부의 넓은 지역에서 평년 이하의 기온이 관찰되었다. 미시간, 미네소타 및 위스콘신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4° F 이상 낮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서부는 계속 건조했다; 하지만 켄터키 일부, 대서양 중부, 미시시피 계곡, 대평원 남부, 테네시 및 텍사스 일부 전역에 평균 이상의 비가 내렸다. 아칸소, 오클라호마 및 텍사스의 일부 지역에는 6인치 이상의 비가 기록되었다.

### □ 세계 기후 현황(8/30~9/5)

■ 유럽: 프랑스에서는 국지적인 건조가 지속되었지만, 광범위한 비가 내려서 겨울 작물 파종을 위한 수분을 유지 또는 개선했다. 유럽 중부와 동부의 대부분에서 적당하거나 강한 비(10~95 mm)가 보고되어 겨울 작물 파종을 위한 토양 수분 공급을 증가시켰지만 야외 작업과 여름 작물 건조는 방해했다. 지난 주와 달리 소나기(5~50 mm)가 불가리아 북동부와 루마니아 남동부로 확대되면서 가뭄을 완화해주었고, 겨울 작물 파종과 출현에 아주 필요한 토양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동유럽 전역의 여름 작물들은 대체로 종실비대 및 성숙기의 후반기 중에 있었고 이번 주에 내린 비가 옥수수, 콩 및 해바라기에 대한 수확량 전망에 의미 있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다. 프랑스에는 소나기가 더 가볍게 내렸고(대체로 5 mm 미만), 3월 중순에 시작된 오락가락한 가뭄으로 발생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계속 씨름했다; 밀과 유채가 균일하게 활착하려면 비가 곧 내려야 할 것이다. 대개 9월 말에 선선한 우기가 시작되는 스페인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유럽 남동부에는 늦여름 더위(낮 최고 기온이 38° C에 도달하여 평년보다 최대 4° C 높은)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대륙 대부분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 C 낮았다.

■ 구소련(서부):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늦여름 더위와 건조가 가뭄을 악화시켰다. 흑해 연안에서 중앙 러시아까지 고기압이 뻗어 있는 광대한 지역이 맑은 하늘과 평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 토양 수분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종실비대 및 성숙 중인 여름 작물들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심화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러시아 서부의 일부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의 중서부 및 동부에서 늦은 발현은 여름 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이 더욱 삭감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90일 총 강우량은 평년의 50% 이하였던 반면 30일 강우량은 지역적으로 평년의 30%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그 지역의 남쪽 절반 전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 C를 찍으면서 평년보다 최대 7° C 높은 기온이 토양 수분 손실을 악화시켰다; 대개 연중 이 시기 중에 나타나는 최고 기온은 20도대(섭씨) 중반대였다. 주말에 북서쪽에서 다가온 한랭 전선 하나가 그 지역의 최북단 및 최서단에서 중간 수준의 또는 강한 소나기와 뇌우(10~70 mm)를 촉발시켰는데, 9월 8일 현재 위성 및 레이더 영상은 소나기 활동이 동쪽으로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 중서부 전역을 휩쓸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앙 및 남부 채배 지역에서 겨울 밀의 파종 및 활착을 위해서는 조만간 광범위한 비가 필요할 것이다.



■ 동아시아: 태풍 마이삭은 주간 초에 필리핀 동쪽에서 형성되다가 급격히 강해져서 9월 1일에는 최대 지속 풍속이 125 노트에 도달했다. 그 폭풍은 북쪽으로 나아가다 남한 남동부에 상륙했고 한반도 동쪽을 따라 움직이다가 중국 북동부에서 소멸되었다. 마이삭은 풍속, 압력 및 축적된 선풍 에너지 측면으로 볼 때 이번 계절에서 가장 강한 폭풍이었다. 또한, 마이삭은 남북한 동부 해안을 따라 그러나 대부분의 벼 재배 지역은 벗어난 중에 홍수를 일으키는 비(거의 400 mm)를 발생시켰다. 한반도의 나머지 지역 전체와 중국 북동부 대부분에 걸쳐서 폭우가 보고되었는데 대체로 이 비가 철을 지나 너무 늦게 와서 대부분의 작물들에게 그다지 유익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미성숙 작물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이 비(25~100 mm)가 일본 일부 지역에도 유입되어서 북부에서는 장기간 계속되던 수분 결핍을 완화시켜주었지만 남부는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비가 와야 한다. 그밖에 중국 동중부와 남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작물의 성숙이 진전되었고 수확이 시작되었다.

■ 호주: 서호주에서 계속 내린 산발적인 소나기(5~20 mm)가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작물의 상태와 전망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에 국지적 소나기(10 mm 미만)가 내렸지만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을 위해서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해주지 못했다. 작물들이 생식기 중에 있거나 생식기에 근접하고 있는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는 맑은 하늘과 대체로 적당한 수분 공급이 겨울 작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이들 주에서 수확량 전망은 여전히 양호했다. 대조적으로 평년보다 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서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이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퀸즐랜드 남부에는 더 많은 비가 필요했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에 가깝거나 다소 높아서 작물의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호주의 남동부 일부에 국지적인 서리(-2° C 가량의 기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아직 발달 중에 있는 지역의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소나기가 중앙 아르헨티나에서의 가뭄을 다소 해소해주었지만 남부 농장 지대는 다시 결빙 온도로 떨어졌다. 코르도바 동부에서 우루과이 전체에 내린 총 강우량은 10~50 mm 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동부 대부분을 덮을 정도로 남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북부의 많은 곳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라 팜파, 코르도바 남부의 인근 지역 및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많은 곳들에 다시 결빙(밤 최저 기온이 -5° C 이하로 강하)이 일어나면서 지역 전체의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 C 낮아졌다. 8월 말 동결 이후 겨울 곡물을 발달시킨 일주일 간의 더 따뜻한 조건 이후에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9월 3일 현재 해바라기는 13% 파종되어 작년 속도보다 11 포인트 뒤처졌다; 산타페는 선두를 달리면서 53% 파종되었다(작년의 70% 대비).

■ 브라질: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이 지역을 지배하여 밀의 수확을 지원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했다. 대략 리오 그란데 도 술의 남부와 북동부 해안을 따라 산재하고 있는 곳들에만 소나기 (5~25 mm)가 내렸다. 리오 그란데 도 술과 북동부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지만 결빙은 보고되지 않았다. 마토 그로소에서 남동쪽으로 산타 카타리나와 리오 테 자네이로까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우세하여 파라나처럼 먼 남쪽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대 중반에 이르렀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밀은 3% 수확되었고 남은 밀의 85%는 종실비대 및 성숙기에 있었다; 한편, 2차 작물 옥수수는 78% 수확되었다. 밀을 늦게 심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9월 3일 현재 55%가 생식기에 도달했다. 9월 4일 현재 마토 그로소에서는 면화 수확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마토 그로소에서는 우기가 대개 9월말에 시작하는데 대규모 콩 파종을 지지하려면 우기가 적시에 시작해야 한다.